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19)

...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며, 역할은 달라도 근본이 하나이므로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에 대한 비밀한 말씀이지요.

사람의 제한적인 사고와 이론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간 경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 3:14)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낳거나 지은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지각과 상상을 초월해 시작도, 끝도 없으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공간 안에 흘러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계셨습니다(요 1:1, 요 1:5).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고,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가장 먼저 공간을 나누셨습니다. 영의 공간과 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갈 육의 공간을 나

누신 것이지요. 그 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으며(행 13:33, 히 5:5), 성령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요 15:26, 갈 4:6). 마치 분신을 만들어 내듯이 영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경작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역할은 다르지만 근본 하나로서, 마음도, 생각도, 능력도 하나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2.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질서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느끼고 원하시는 것을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원하시지요. 역으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쁨이나 고통을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느끼십니다. 그런데도 세 분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한 분 한 분의 성품이 구별되며 역할도 다릅니다.

분명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셨지만 성자 예수님은 신성적인 면이 더 강해 신(神)적 위엄과 공의가 두드러집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인성(人性)적인 면이 더 강하므로 자상하고 섭세하며 자비와 긍휼의 측면을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지만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성품이 구별될 뿐 아니라 뚜렷한 질서 가운데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 다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님은 그 다음이 되어 성부, 성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섭기십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한 사역 또한 함께 이루어가십니다. 각각의 역할을 정확히 감당하심으로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작의 섭리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1) 구원의 길을 여시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구세주로서, 죄인 된 인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는 영계의 법칙에 의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려면 첫째로,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하며 셋째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넷째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십자가의 도』 책자 참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돼 난 것이 아니므로 원죄가 없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으셨지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게 됐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불순종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 경작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실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성자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 죄 없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2)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

인간 경작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사람들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에 영을 무수히 분리해 일하신다는 점이 특징이지요. 본체는 한 곳에 계실지라도 본체와 똑같은

마음과 능력을 가진 영이 무수히 분리됨으로써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그 영을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분리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처럼 분리된 성령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는 개인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또한 부지런히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는 애통하시며 회개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롬 8:26). 이와 함께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과 각종 은사들을 주셔서 능히 죄를 베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3) 인간 경작의 총감독이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거대한 계획의 총감독이시며,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이며 마지막 때의 심판자 역할을 하십니다. 이처럼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질서 가운데 정확히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 세 분이 동시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일서 5:8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물은 영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역이며, 피는 십자가에 달려 피흘리신 주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령과 물과 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 사역해 믿는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증거를 주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라고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으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빙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수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찰이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회요천양예배[대학·가니안·청년·비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천양예배	9:00 PM
토요천양예배[중·고등부]	4:00 PM
토요천양예배[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면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송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